

장성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11월에 만나요”

5000석 규모 공설운동장 건립...현재 공정률 75%

전국 규모 대규모 행사 유치 가능 삶의 질 향상 기대

장성군민의 숙원 사업인 엘로우 시티 스타디움(공설운동장) 건립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장성군은 전체 공정의 75%를 완료해, 예정대로 올해 11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이 지난 1월 1일에 조성 중인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과 4층 규모의 본관동, 국제경기 규격의 축구장을 갖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씨름장, 소공원,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7만4911㎡ 규모의 공사 부지는 황룡강의 지류인 취암천의 물줄기를 직강화해 확보했다.

장성군은 운동장 및 도로의 포

장과 관람석 설치, 수변공원 및 소공원 조경 작업 등 남아있는 공정을 올해 11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이 완공되면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해 장성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은 현재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남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문화·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장성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흥길동체육관, 수영장 등과 가까워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은 군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 건립 중인 장성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은 장성군민

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고품격 체육시설”이라며 “장성군의 발전을 널리 알리는 랜드마크로 자

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곡성군, 현장상담으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곡성군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현장 상담회를 가졌다.

상담회는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적응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업 전문가 3명이 청년농업인들의 농업 현장을 둘러보고, 농가 경영장부 사용 등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곡성군은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1명을 선발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곡성군은 영농정착 지원 사업 외에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통해 청년농의 적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경영실습 농장을 최적화된 현대식 스마트 온실로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화순군 보건소, 비상 체제로 전환

민원업무 중단...장기전 대비 인력 재배치 코로나 대응 집중

화순군이 지난 13일부터 보건소 일반 진료비 비롯한 모든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 인력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계속된다고 판단, 장기전에 대비해 진료·방역에 집중하고 비상근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을 비상근무 체제로 재배치했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국가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

제적인 조치다”며 “불편하시겠지만 앞으로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구중곤 군수는 “보건소 인력 재배치 뿐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해 위기 상황 대응 종합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겠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종료에 따른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도 철저히 지도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보건소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보건행정팀(☎379-5305)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교육' 온라인으로 대체

코로나19 장기화 대안으로 긴급 온라인 교육 전환

담양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중단되었던 농가형 가공식품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경영체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당초 6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총

5회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난 7월초 전면 중단됐다.

이에 군은 감염 확산 방지와 교육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교육 영상을 업로드하고 교육생 댓글과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의 온라

인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당초 일정대로 운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대면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금이라도 마케팅 기술습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재 농촌과 농업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시, '우리 쌀 단체급식 교육' 영상 수업으로 진행

영상사·조리사 등 대상

나주시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우리 쌀 이용 단체급식' 교육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영상사, 조리사 등 단체급식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활용한 단체급식 레시피 이론·실습 과정(총4회)을 운영한다.

특히 우리 쌀의 영양학적 가치,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우리 쌀로 만든 다양한 요리 실습을 통한 쌀 소비 촉진 계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시는 당초 농업인교육관에서 대면 실습 교육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강생 안전을 위해 첫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일정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대면으로 진행된 첫 교육 시간에는 우리 쌀을 재료로 한 '참깨소스비빔국수', '들깨



증새송이살떡볶음' 등 단체급식 메뉴 조리·실습이 진행됐다.

이후 화상교육은 '현미밥완자튀김', '절편쇠고기샐러드', '기정떡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우리 쌀 요리 개발 메뉴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 3번째 석곡흑돼지 특화음식점 준비 완료

곡성군이 석곡흑돼지 특화음식점 개선 사업으로 지원하는 3번째 식당이 신축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곡성군은 올해 석곡흑돼지 특화음식점 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2개소가 리모델링을 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한 곳의 식당이 신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S식당은 3대째 운영 중인 지역 전통 맛집이다. 국내산 식재료와 자연 조미료를 통한 건강한 맛과 양질의 서비스를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어머니와 두 아들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데 틈틈이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며 변화를 시도해왔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남

범 상 다

한 속 른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